

온새미

Onomad.club



e-레지던트 핀란드인이 설립한 WOLT회사가 바다 건너 에스토니아 국내에 수백명의 푸드배달인들을 고용하였다 (사진).



에스토니아 e-Residency의 동기는 “국경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유럽국외의 한국인은 e-레지던트 (실제는 비거주자) 자격으로 에스토니아 국내 및 유럽연합국 다른나라에서 영업을 확장, 에스토니아 본사에 전자소득,세금신고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에 프리랜서, 자영업, 여행사 및 회사를 설립하여 비거주자(거주자) 자격으로 다른 유럽멤버국에 실제 거주하며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한국은 에스토니아, 유럽과 이중과세 방지법 적용).

비즈니스, 사람 및 돈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에서 경쟁력있는 세금코드를 갖는 것이 경제적 성공에 훨씬 더 중요해졌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에 기반을 둔 세무재단이 발표한 최근 수치에 따르면 OECD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s)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세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자유목록에서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법인 소득세가 이익 분배 (즉, 배당)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20%로 제한되는 고유한 소득세 시스템이 있다. 회사내에서 이익을 유지하는 한 법인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개인 배당소득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고정되어 있다.

* CFC (세금탈피목적의 특정 옴쇼어구조는 별도검증이 필요), 부동산 자산세 이외에는 특허, 부유세, 상속, 양도, 자본업무등 일체 세금이 없다.

e-Residency는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에스토니아의 안전한 디지털 거주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에스토니아 e-Residency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발급한 스마트 ID 카드를 받게 되며 디지털 식별 및 승인이 제공된다. 이렇게 하면 에스토니아에 살지 않아도 중요한 문서에 디지털 서명하고 안전한 서비스에 액세스하며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Residency는 한국 기업가가 에스토니아 회사를 설립하여 독일에 기반을 둔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유럽 연합 전역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온라인, 원격 리모트로 번거롭없이 완벽하게 수행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e-Residency는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에스토니아에서 안전한 디지털 거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자 거주자에게는 특수침이 포함된 디지털 ID 카드가 제공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에스토니아의 공공 및 민간부문 서비스 및 리소스를 사용하고 원격으로 문서에 서명하며 파일을 암호화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프로그램의 보안과 단순성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미디어가 밀려 들어 공식 출시에 대한 개별통지를 해주도록 했으며, 24 시간 이내에 168 개 국가의 사람들이 공식통지를 신청했다. 공식 신청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만 6,000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에드워드 루카스(Edward Lucas)는 에스토니아 최초의 e-레지던트가 되었다.

e-Residency는 새로운 개념이지만 정부에서 발행한 디지털 ID 카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에스토니아인들은 이 카드를 10년 이상 사용해 왔다.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종종 “e- 에스토니아”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디지털 ID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 쉬웠다. 에스토니아는 사실상 모든 공공 및 민간부문 거래를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특히 상용화된 PaaS (Platform-as-a-Service)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했다.

“우리가 목표로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쉽게 기업가가 되어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전 세계 가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인 국경과 제한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에스토니아의 e- 레지던시 프로그램 디렉터인 카스파.코르주스(Kaspar Korjus)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e-Residency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비즈니스 소유자, 국제 파트너 및 에스토니아와 관계가 있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삶과 비즈니스를 훨씬 쉽게 만드는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e- 레지던시 (E-Residency)는 사업을 시작, 확장 혹은 투자를 하거나 유럽 연합에 유학하려는 경우 입학수속이 간단하다.

e-레지던트 자격으로 수행가능한 업무들

- 온라인 회사 설립 및 운영
- 온라인 뱅킹 전자 은행 송금
- 국제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액세스
- 회사 및 외부 파트너와 함께 문서 (연간 보고서, 계약)에 디지털 서명
- 서명된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
- 문서를 안전하게 암호화 및 전송
- 온라인 세금 신고

더 많은 사람들이 e-Residency의 가치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프로그램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175개국 이상의 53,719명이 e-Residency를 신청했다. 7,800명은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 이사회에 합류했다. 실제로, 신

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에스토니아 또는 e-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다. 현재 300여명의 한국인 가입자들이 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 에스토니아 경찰과 국경 경비대는 배경 점검을 할 것이며 신청이 승인되면 디지털 ID 카드를 받을 곳을 선택하게 된다. 전세계 38개 에스토니아 대사관 및 영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에스토니아의 경찰 및 국경수비대에 갈 수도 있다. 디지털 ID 카드가 선택한 픽업 장소에 도착하면 본인이 직접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의 유효여권을 제시하고 확인을 위해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e-레지던트 신청절차

1. 공식 e-Residency 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는다.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신청 목적을 설명하고 €100 e-Residency 주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원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4. 픽업 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디지털 ID 카드와 스마트 카드 리더가 포함된 스타터 키트가 제공된다. 선택하는 픽업 장소와 대기 지원자 수에 따라 전체과정은 2-4주가 소요된다.
- 픽업장소 : 유럽각국 수도, 서울, 미국(NY, 워싱턴, SF), 오타와...

디지털 ID 카드를 받으면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다. 즉, 문서에 디지털 서명하고 문서를 인증하며 3년 동안 문서를 암호화할 수 있게 된다. 에스토니아 주민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모든 e-정부의 사회시스템이 주는 편의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에스토니아 e-Residency 카드는 실제 신증이 아니며 여행 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시민권(Citizenship), 세금 거주(Tax Residency), 거주허가 체류증(Residency) 효력이 없어서 에스토니아 또는 기타 유럽 연합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Transferwise 또는 Revolut와 같이 현대

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기존은행을 하나의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에스토니아 공공 부문과 함께 외국인들의 행정시스템 전환으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한다. 관료주의가 최소화되고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적으며 원격 사용 인프라를 갖춘 에스토니아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아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유럽연합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서 EU 단일 시장에 진출
- Google, PayPal 등과 같은 국제결제 제공 업체에 액세스
- 간단한 설정 프로세스를 통해 통합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비즈니스 조직
- 단순하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 회사에서 이익을 유지하거나 사업 성장에 재투자하는 한 0%의 법인 소득세.
- 완벽한 원격 제어 - 위치에 상관없이 e-Residency를 통해 은행 및 회사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
- 좋지않는 행정
- 높은 수준의 보안이 보장되는 디지털 서명 및 암호화 도구

에스토니아에는 위에서 논의한 모든 잇점과 기능들이 월정 요금제로(50-100E) 자동화된 온라인 회사관리 솔루션으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개인 프리랜서들의 수많은 의문점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준다. 탈린 시내의 코워킹 비즈니스 센터에 버추얼오피스를 개설하여 구체적인 주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도 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및 비즈니스를 원격으로 운영할 방법이 필요한 분산 팀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에서 자유상담원 고용으로 업무가 이동하고, 전 세계 국경간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구조의 단순화, 번거로움의 최소화, 종이서류작업 불필요, 원활한 회계처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기업, 프리랜서들을 주고객으로 한다.

- e-레지던트 신청 <https://e-resident.gov.ee>
- 에스토니아 한국인 통계 : 영주권자 8, 일반인 12, 학생 53 (합 73인)
- 프리랜서, 기업가 거주위한 에스토니아 레지던트, 유럽28개국 영주권 문의 GlobalResidence21@gmail.com

Sécuriser l'Avenir de Famille avec résidence alternative et citoyenneté

Asie-Europe-Amérique
Global Residence 21
U.K. & global partners

OUR NATIONS

광(Caen) 지방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제네바공경도시 안마스(Annemasse)에서 스위스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하는 40대 중반 중국인 고객의 요청으로 2년전 1월 수도 탈린(Tallinn)의 아파트 투자물색을 위해 함께 다녀왔다. 지난 15년간 여행사수익으로 이삼년마다 5채의 아파트투자를 해왔으나 최근 수년간 중국인 여행객들의 쇼핑이 좋고, 프랑스 한나라에만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부과세금도 높아져 유럽 각국의 투자처를 찾던 중 의외로 온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 무려 13% 수수료.등록.공증 인비용이 소요되는 프랑스(유럽연합국 최상위수준)에 비해 에스토니아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총비용이 구입가의 3%로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이다. 수도 탈린 중심지와 페리항구 지역이 투자.개발붐이 불면서 최근 10년간 주변국의 노동자들이 도심지로 몰려들면서 아파트 임대수익이 투자대비 유럽 최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전 방문 어렌지해 두고 출발하여 방문 한 후, 공증인(notary)에게 10% 선불로 즉시 구입계약, 안마스(Annemasse)로 돌아와 잔액을 송금한 후 부동산등기 처리가 되는 데는 구입 결정후 이틀이 소요되었으니, 준비자금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경우 방문-결정-등기까지 영업일 3일이면 가능한 초스피드의 e-전자정부 시스템을 실감할 뿐이다.

최근 수년간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온 프랑스(*한국)의 부동산 취득 사정은 어떤가... 13%(*8%) 소요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기부 서류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6개월(*2주일)이 소요되는 구제도의 진부한 프랑스 사회시스템이 쉽게 비교된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수도 탈린은 45만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젊은 세대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구사한다. 모국어 사용자와 러시아어를 말할 것지만, 에스토니아인들은 영어를 선호하며, 투명한 e-정치, e-사회시스템이 한결 신속.편리하기만 하다.

에스토니아 여행은 안전하다.

구 소비에트 연합국의 KGB본사가 있었던 탈린수도... 구도시는 13세기에 지어진 교회첨탑과 소비에트 문화권의 지붕색을 간직한 상업소들로 성채도시로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되어 관광명소가 되었다. 런치시간에 들른 이태리인 젊은 셰프.주인은 많은 유럽인 방문고객들과 분주한 일상업무중에서도 이곳에 정착한 사유를 물었더니... 친절하고 밝은 현지인 이웃들의 도움과 우정에 많은 고마움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시대가 바뀌어 경제적인 활력을 찾는 구공산권 나라들은 안전하며, 특히 에스토니아는 매우 안전한 나라이다. 이곳의 범죄는 해마다 줄어 들어 (공공 교통은 안전하지는 않지만) 서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한 원종일 여자 혼자서 낮과 밤을 자유로이 돌아다녀도 무난하다.

정치적으로 구러시아와 임박한 위험도 전혀 없으며,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예측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기회를 노려 소비에트 연방을 재구축을 꾀하고 있다지만, 우크라이나, 조지아와 달리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멤버이자 NATO회원국이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노르웨이, 핀란드 또는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와 서구의 협력을 계속 망쳐 놓고 있지만 지금은 러시아의 손익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도 없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의 야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걱정조차 할 필요는 없다. 매시간마다 거대한 페리로 드나드는 바다 건너 헬싱키, 스웨덴과도 인접하여 구소련의 1.2차 세계대전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인터넷 액세스 인프라는 미국.유럽 어느나라보다 우수하고 저렴하다. 하지만 구소련에서 독립한 지 28년이 되었지만 서유럽보다 다소 보수적인 국가로 아메리카 중서부 정치상황과 다소 비슷할 수도 있다. 수년간 많은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 온 스웨덴, 핀란드 주변국들과 달리 에스토니아 정부는 난민들과 보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EU가 지정한 할당량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동안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곳에 배정된 난민들은 대부분 결국에는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탈출하고 만다. 현재 수백명의 난민이 실제로 이 나라에 머무르고 있으며, 난민센터는 탈린이 아닌 시골지역에 있다.

대자연 숲속 수십헥타르 집한채 3만유로 은퇴자를 위한 여름휴양지로 추천

탈린 외곽으로 5킬로만 벗어나면 대자연의 숲속에서 자연산 버섯채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렌트카를 빌려 어느 숲이든 자유로이 들어가 마음껏 버섯채취 주말농장 피크닉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연산 버섯을 20킬로 선물용으로 구입할 목적으로 유럽각국에 통신배달하는 전문회사에 문의하니... 놀랍게도 1톤 이상만 판매하며 3-4천유로 가격이란다. 나라 전체가 숲으로 가득하여 이들은 '우리들의 집은 숲이다' 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남동쪽 Jarvelja Premeval숲은 물론 도처의 숲에서는 여우, 사슴, 늑대, 엘크, 곰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시골속이 많이 쌓인 설경의 발탁해안 가까운 숲속에서 매력적인 사냥을 즐길 수도 있다. 특히 슈퍼마켓,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모든 과일주스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색채첨가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모두 자연산 과일주스다. 과일수확에 좋은 자연기후로 포도농장도 장기숙성한 빈티지 맛보다는 숙성기간이 짧은 푸르티한 맛의 포도주를 생산하며, 서쪽 바다의 Hiiumaa, Saaremaa섬들의 넓고 기후좋은 자연성들에서 많이 생산된다. 유럽의 대도시 생활을 떠나 가족의 주말 피크닉, 장기적으로 여름휴양지나 은퇴요양지로도 추천할 만하다.

여행에 안전하고, 영어를 구사하며 저렴한 물가, 일반인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시스템을 잘 아는 유럽인들, 특히 영국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장기주거하는 중년부부,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우기 외국인 세금감면 혜택 및 외국인 양도.상속세도 없으며 옴쇼어구좌 인터넷관리가 편리하다. 높은수준의 교육제도와 영어교육의 잇점이 있어서 자녀에게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찾는 젊은 부부에게, 필리핀 대신 북유럽의 탈린은 매력적이기만 하다. 영어교육이 가능한 유럽의 스위스,룩셈부르크,아일랜드,말타,사이프러스의 학비부담을

비교해 본다면 에스토니아 영어교육제도는 젊은 부부의 유럽진출에 유리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더우기 대학생들은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ID카드를 받기받아 유럽각국의 대학교에 자유로이 입학수속은 물론 유럽연합국내 에라스무스(Erasmus) 공유학업제도가 있기에 유익하다.

유럽연합국 초기진출은 초기정착 비용을 감안할 때 젊은 부부에게 실제 최소 20만 유로의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소자본으로 프리랜서, 자영업등이 가능하며, 핀란드, 스웨덴, 발틱해 주변국으로 차차 이동하여 재정착하기에도 수월하다. 에스토니아는 초기 수년간 정상 소득이 없어도 체류증 갱신이 무난하여 중국인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년후 소득증명과 건강보험 서류등 자료를 구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10년후 가능).

유럽권내 한나라에서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멤버국에 자유로이 재정착할 수 있으며, 영주권소지 국가의 건강보험으로 유럽연합 다른나라에 가서도 방문도중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 제외)

에스토니아가 낳은 오케스트라 감독, 파야보 자르비(Paavo Järvi)

10년전 베를린 공연에 참석하여 기억하는 에스토니아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파야보.자르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파리 오케스트라 리스트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반가웠다. 탈린태생의 에스토니아인 지휘자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Paavo Järvi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하여 줄리어드 및 필라델피아 뮤직 인스티튜트와 LA에서 레오나드.번스타인 사사를 받았으며 1985년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파리 오케스트라 (2010-2016) 음악감독겸 수석 지휘자인 파야보 자르비(Estonian Paavo Järvi)에게 2015년 시벨리우스 메달을 수여했다.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감독, 스톡홀름, 베를린, 뮌헨, 주리히 감독 활동을 하며, 뉴욕 필하모니, 유럽에 정기 순회공연하는 국제적인 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k.yung